

▣ ‘이적을 보여달라’ 요구하는 이유

새번역) 출7:8~11 “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. 9“**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든,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.** 그러면 **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.**” 10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. **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.**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, **그것이 뱀이 되었다.** 11**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,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.**”

■ ‘거짓’이 ‘참’처럼 보일 수 있는 시대

새번역) 출7:12 “12**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,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.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.**”

■ ‘참이 거짓을 삼키다.

■ ‘바로’는 계속 고집을 부리다

새번역) 출7:13 “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,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,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.”

▣ 공동체 적용 질문

1. 요즘 내 신앙에서 하나님보다 ‘증거’(결과·성과·인정)를 더 붙들고 있는 자리(생각/감정/선택)는 어디입니까?
2. 이번 한 주, ‘비슷해 보이는 것들’ 사이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? (예: 말씀 한 구절 붙들기, 말 한 번 멈추기, 정보 소비 줄이기, 기도 3분)

* 기쁨찬양 / 하나님의 은혜

하나님의 은혜

조은아 작사

신삼우 작곡

D D+ D6 D7 GM7 Em7 A7

나를 지으신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이가 하나님 나를

5 DM7 D/F# G Gm D/A A7 D A7

보내신이도 하나님 나의 나뉜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

9 D D+ Bm7 Am7 D7 GM7 Em7 A7

달려갈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

13 D/F# GM7 Em^(b9) D/A A7 Gm/D D

그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뉜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

17 Am7 D7 D/F# A/G G A/G F#m7

한량없는 은혜 갠길없는 은혜

21 B7^(b9) Em7 A7 D Em7

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

25 D/F# Am7 D/F# G A/G F#m7

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

29 B7 Em7 A7 A7^(b9) D

나를 부드리는 하나님의 은혜